



김형수 작 '아진'



김영태 작 '어느날의 무등산'

역동의 시대 살아온 두 원로작가의 삶과 예술 '백화난만'

〈百花爛漫: 온갖 꽃이 활짝 피어 아름답게 흐드러진 상태〉

‘색과 구성의 조화를 추구하는 삶’, ‘전통 수묵산수화의 새 길을 개척’

남도의 원로 작가 김영태와 김형수는 일제강점기부터 근대, 현대라는 역동적인 시대를 살아온 예술가들이다.

1927년 함평에서 태어난 김영태 작가는 1946년 개교한 조선대 미대 1회 졸업생이다. 유화 작품을 그렸으며 한글화가 구상화회에 집중했다.

1929년 해남에서 출생한 김형수 작가는 심산 노수현, 남농 허건, 동강 정운면에게 그림을 배워 남도 문인화 전통을 이었다.

두 원로 작가의 삶과 예술세계를 조명하는 의미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어 화제다.

함평군립미술관(관장 이태우)은 오는 12월 15일까지 김영태·김형수 기획전을 진행 중이다. 전시 주제가 ‘백화난만’ (百花爛漫).

사전적 의미의 ‘백화난만’은 “온갖 꽃이 활짝 피어 아름답게 흐드러진 상태”를 뜻한다. 꽃이 만발한 모습은 백수(白壽)에 이르는 예술의 길을 걸은 두 작가의 삶에 비유된다.

전시에서는 모두 68점을 선보인다. 국립현대미

김영태·김형수 작가 ‘백화난만’ 전 12월15일까지 함평군립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등 소장 작품 68점

술관을 비롯해 광주시립미술관, 조선대미술관 등 여러 기관 등이 소장한 작품을 엄선했다.

김영태 작가는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각광을 받을 만큼 예술적 성취를 인정받는다. 비교적 부유했던 어린 시절, 그는 일본에서 출판한 그림책 전집을 구해 모사를 하곤 했다. 중학교는 부친 권유로 농업학교에 입학했지만 그림에 대한 열망을 버리지 못했다.

김영태 작가는 “해방 후 미술대학 진학을 위해 개교한 조선대에 입학했는데 당시 그림을 지도해준 이가 바로 김보현 교수였다”며 “제대로 된 교실도 아닌 곳에서 대생 수업을 할 만큼 당시 상황은 열악했다”고 술회했다.

이후 조선대 부속 중학교에서 미술 교사를 했으며 광주공고, 목포공고, 광주서중 등에서 교단에 섰



김형수(왼쪽), 김영태 작가 〈함평군립미술관 제공〉

다. 퇴직 후 전업작가 길을 걸으며 ‘광주일요화가회’를 만들었다. 10년간 회장 겸 지도교수를 하며 기회가 닿는대로 일본, 유럽, 아프리카, 남미 등 세계 각지로 여행을 다니며 작품을 그렸다.

이번 전시 출품 작품은 1979년 작 ‘산촌에서’를 비롯해 1982년 작 ‘성하’, 1999년 작 ‘오월의 마량

항’, 2014년 작 ‘어느 날의 무등산’ 등이다.

푸른 바다와 흰 구름, 흰색의 지붕 등 밝은 색감이 인상적인 ‘오월의 마량항’은 경쾌한 붓놀림이 느껴진다. 물산이 풍부하고 역동적인 어촌의 모습에 매료되었음을 보여준다.

작가는 현장 작업을 즐겼으며 풍경의 색이 아닌 자신이 조합한 색을 입혔다. 유연한 시각과 기법으로 색과 구도의 균형을 추구했다. 그러나 요즘은 “예전만큼 붓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한다.

김형수 작가는 조선 중기 문신이자 성리학의 대가인 허서 김인후의 후손이다. 부친은 바이올린 연주하는 물론 유희를 그릴 만큼 예술적 재능이 남달랐다.

김형수 작가는 “초등학교 당시 배운 수채화로 그림에 입문했다”며 “그림과의 운명적인 만남은 열세 살 때인 심산 노수현 선생과의 인연이었다”고 회고한다.

유치였던 아버지는 사랑방에 목객들을 초대하곤 했다. 그 가운데 한 명이 심산(心山) 노수현이었다. 이러한 인연으로 김형수는 1943년 상경해, 노수현에게 2년간 전통회화를 배운다.

이태우 관장은 “노수현의 산수화는 근경, 중경, 원경의 점점산경을 마치 벽돌을 쌓아가듯 구축하는 느낌이 있는데, 이러한 회화적 특징을 김형수 작품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귀향 후 문태중학교에 다니며 김형수는 남농 허건의 작업실을 다니며 그림을 배웠다. 이후 서중학교로 전학을 가, 정운면 선생을 만나 그림공부를 한다.

이후 경남 함양중 미술교사로 교단에 몸담았으며 1956년에는 광주 살레시오고에 부임하며 광주에 정착한다. 이태우 관장에 따르면 “남도의 전통 수묵화의 위상에 김형수 작가는 본격적으로 전통 수묵산수화에 몰두하게 된다”며 “실경과 사경 산수, 농약, 강강술래 같은 인물 군상을 그렸다”고 언급했다.

이번에 선보이는 대표작은 ‘아진’ (雅陣), ‘곡’ (谷), ‘보리밭’ 등이다. 특히 작품 ‘아진’의 너른 들녘을 뒤덮듯 선화하는 까마귀 떼 모습은 가히 장관이다. 기존의 한국화에서는 볼 수 없었던 소재와 구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수묵담채의 높은 완성도를 보여준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아련한듯 따스한...문정호 작가의 ‘삶, 그리고 바람이 분다’

31일까지 ACC 디자인호텔

작품이 주는 이미지는 아련하면서도 따스하다. 기계의 부속품처럼 살아야하는 각박한 일상에서, 문득 그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 미소가 지어진다.

문정호 작가의 그림은 보는 이의 마음을 끌어당긴다. 천천히 음미하듯 바라보고 있으면 풍경 속으로 초대받는 느낌이다.

문 작가의 개인전이 31일까지 ACC 디자인호텔에서 진행 중이다.

‘삶, 그리고 바람이 분다’를 주제로 열리는 전시는 가을 이맘때, 낙엽이 조금씩 떨어질 무렵의 심상을 느끼게 한다. 대상을 바라보는 작가의 심미안은 깊고 은후하다.

‘붉은 숲’은 만추의 풍경을 조경화한 작품이다. 가을 너머 겨울 초입의 모든 나뭇잎을 떨쳐버린 나무들의 ‘빈 몸’을 그린 것 같기도 하다. ‘만산홍엽’과는 다소 결이 다르기도 하지만, 불그스름한 태양의 장상이 스며든 풍경은 보는 이의 마음을 따스하게 데워주는 듯하다.

‘산동의 봄’은 한마디로 아름답고 이쁜 그림이다. 금방이라도 풍경을 찾아 구례 어느 시골을 찾아 나서고 싶은 마음이다. 화폭에서 배어나오는 색깔은 특유의 불빛을 머금고 있다. 색깔은 색감대로, 구도는 구도대로, 이미지는 이미지대로 모든 것들이 합을 이뤘다.

어느 삶인들 바람이 없는 인생이 있으리라는 문



‘산동의 봄’

작가의 작품 속에 스민 바람은 황량하고 거칠기보다 숨결을 북돋우고 다독이는 잔잔한 울림 같다.

문 작가는 “깊어가는 가을을 느낄 수 있는 작품과 잠시 멈춰 삶을 사유할 수 있는 다양한 작품들을 출품했다”며 “각각의 작품이 전하는 메시지를 저마다의 언어로 해석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듯하다”고

전했다.

한편 문 작가는 개인전 11회를 비롯해 광주아트페어, 구상대전 등 다수 전시에 참여했다.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전업작가회, 신형회 회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서울시향 예술감독의 클래식 선물



서울시립교향악단 신임 예술감독 ‘얍 판 츠베덴’

〈Taeuk Kang〉

30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뉴욕, 홍콩 필하모닉 음악감독을 역임한 ‘얍 판 츠베덴’이 올해 초 서울시립교향악단 신임 음악감독으로 취임(임기 5년)했다. 그의 예술적 비전과 지휘 선법을 들여다보는 공연이 광주에서 펼쳐진다.

광주예술의전당(전당장 윤영문·전당)은 기획공연 포시즌 ‘얍 판 츠베덴&서울시립교향악단 with 클라라 주미강’을 오는 30일 오후 7시 30분 전당 대극장에서 선보인다.

공연의 포문은 바그너 ‘뉘른베르크의 명가수’ 1막 전주곡으로 연다. 직설적이고 명료한 독일 음악의 특성이 두드러지며, 금관악기들의 풍성한 울림이 담겨 있는 곡이다.

3개의 악장으로 구성된 브루흐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 사단조’는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강의 협연으로 듣는다. 이 작품은 오페라 독백과 비슷한 1악장으로 시작해 서정적 운치가 돋보이는 2악장, 두 현 이상을 한 번에 연주하는 ‘더블 스톱핑’ 등으로 채워지는 종막으로 구성된다.

클라라 주미강은 2009년 서울국제 음악콩쿠르, 이듬해 인도네시아 폴리스 콩쿠르, 샌다이 바이올린 콩쿠르 등에서 우승했다. 23-24 시즌에 든버러 페스티벌에서 솔로 리사이틀을 진행하며 국제 무대에 이름을 각인했다. 그가 연주하는 1702년산 스트라디바리우스 튜니스는 클래식필들의 이목을 사로잡기 충분하다.

대미는 러시아 작곡가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5번’으로 장식한다. 악곡은 강렬하지만 애수 어린 선율로부터 승리의 느낌을 주는 결말부로 흐른다.

전당 포시즌 조근휘 담당자는 “고려교향악단을 원연으로 1945년 설립된 서울시향, 19세대로 로열 콘서트헤비우 오케스트라의 최연소 악장으로 임명된 얍 판 츠베덴이 클라라 주미강과 함께하는 공연을 준비했다”며 “유럽과 아메리카 등 세계무대를 종횡무진하던 예술가들의 아름다운 선율이 가을밤을 물들일 것이다”고 했다.

R석 9만원, S석 7만원, A석 5만원, B석 3만원, 티켓링크 예매.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한강 효과에 ‘텍스트 힙’ 열풍...11월 도서 등 광고 증가 전망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는 다음 달 광고 경기를 전망하는 광고경기전망지수(KAI)를 100.4로 발표, 광고 집행이 소폭 늘어날 것으로 28일 전망했다. 통계청 국가승인통계인 KAI는 매월 국내 560여 개 광고주에게 다음 달 광고 지출 증감 여부를 물어 응답 값을 지수화한 자료다.

해당 업종 광고주 중 광고 지출이 늘어날 것이라 응답한 사업체가 많을수록 100을 넘고, 반대면 100 미만이다. 이달 대비 다음 달의 전망지수는 100.4로 광고비 집행이 이번 달에 비해 소폭 증가

할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별로는 주로 지상파TV(100.4), 종합편성TV(100.4)의 광고비가 이달보다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월 대비 올해 11월의 전망지수는 97.0을 기록해 작년 동월 대비 광고비는 소폭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KAI는 ▲ 출판(104.5·신간 출시 및 인기작 추가 발간) ▲ 제약 및 의료(104.0·환절기 및 성수기 시즌 대비 홍보 증대) ▲ 가정용품(103.7·신구 캠페인 시작) ▲ 식품(103.6·성수기 시즌 대비 광고 증대) 등의 업종에

서 광고비 집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중 출판업계의 광고 증가 원인은 얼마 전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외에도 최근 우리 사회 현상에서도 알 수 있다고 코바코는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연필과 만년필 등 관련 소품을 판매하는 가게가 새로운 장소로 주목받기도 하고, 필사(筆寫) 경연대회와 같은 행사나 독서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글자를 뜻하는 ‘텍스트’와 멋있는 글자의 ‘힙(Hip)’하다가 결합한 표현인 ‘텍스트 힙(Text Hip)’이라는 용어도 새로 등장했다. 이는 글자를 읽고 기록하는 활동 등을 마치 유행처럼 소비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연합뉴스